

중국 풍수고전 《황제택경》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 *

— 음양이택도(陰陽二宅圖)의 청룡(靑龍)과 적룡(赤龍)을 중심으로

趙仁哲**

<목 차>

1. 서론
2. 《황제택경》의 음양이치
 - 2.1 음양이택도(陰陽二宅圖)와 음양이치
 - 2.2 음양상득(陰陽相得)과 포음포양(抱陰抱陽)
3. 《황제택경》의 청룡(靑龍)과 적룡(赤龍)
 - 3.1 24로(路)의 음양구분
 - 3.2 포음룡(抱陰龍)과 포양룡(抱陽龍)
4. 결론

1. 서론

《황제택경》은 중국문헌이며 청대에 제작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¹⁾과 《사고전서(四庫全書)》²⁾에 수록되어 있다. 《고금도서집성》에는 <황제택경>, 그 후에 제작된 《사고전서》에는 <택경>이라는 제목을 붙이

* 이 논문은 2015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조교수

1) 《古今圖書集成》의 정식명칭은 《흠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이다. 본 논문을 위하여 참조한 것은 《鼎文版古今圖書集成》(中華民國臺灣省臺北市: 鼎文書局, 1965(中華民國66年))의 제47책 14. 堪輿部の pp.6724-6727.이다.

2) 본 논문을 위하여 참조한 것은 《景印文淵閣四庫全書》(臺灣商務印書館, 1971(中華民國72年)), pp. 808-1~808-9.이다.

고 있다.³⁾ 기존연구에 따르면 《황제택경》의 대략적 성서(成書) 시기는 남북조(南北朝)에서 당대(唐代)로 파악된다.⁴⁾

《황제택경》은 <사고전서본>이나 <고금도서집성본> 이외에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돈황본(敦煌本)>이 있다.⁵⁾ <돈황본>이 앞의 두 본에 비해 시대적으로 앞서는 것인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황본이 발굴당시 당대문헌(唐代文獻)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황제택경》의 제작시기를 빠르면 당대로 추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황제택경》의 <서(序)>⁶⁾에서나 본문 중의 경왈(經曰) 또는 경운(經云)⁷⁾으로 시작하는 인용문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존하지 않는 것이지만 성서 당시 많은 건축풍수서가 존재하였고, 《황제택경》은 그러한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정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제택경》이 건축풍수서로서 주목을 끄는 이유는 《황제내경》⁸⁾과 함께 황제에 가탁한 서적이라는 점 외에도 《황제내경》의 동양의학계의 비중에 못지않게 풍수분야에서 그 가치를 가진 풍수고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제내경》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황제택경》에 대한 연구는 사실 미미한 형편이다. 《황제택경》에 대한 직접적인 기존의 연구는 장성규, 김혜정에 의한 것으로 귀착된다. 지금까지 《황제택경》에 대한 국내연구로서 이들에 의한

3) 이하 《황제택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고금도서집성》이나 《사고전서》에 포함된 것이지만 편의상 < >를 사용하지 않고 단행본처럼 《》을 사용하기로 한다.

4) 장성규, <《황제택경(黃帝宅經)》의 문헌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p.75.

5) 돈황본의 발견과 관련된 내용은 장성규, 위의 논문 pp.75-80. 참조.

6) 《황제택경》의 <서>에서 《黃帝二宅經》, 《地典宅經》, 《三元宅經》, 《文王宅經》, 《孔子宅經》, 《宅錦》, 《宅撓》, 《宅統》, 《宅鏡》, 《天老宅經》, 《劉根宅經》, 《玄女宅經》, 《司馬天師宅經》, 《淮南子宅經》, 《王微宅經》, 《司最宅經》, 《劉晉平宅經》, 《張子毫宅經》, 《八卦宅經》, 《五兆宅經》, 《玄悟宅經》, 《六十四卦宅經》, 《右盤龍宅經》, 《李淳風宅經》, 《五姓宅經》, 《呂才宅經》, 《飛陰亂伏宅經》, 《子夏金門宅經》, 《刁曼宅經》이 거론되었다.

7) 자하운(子夏云) 또는 삼원경운(三元經云) 등이 그것이다.

8) 《황제내경》의 성서시기(成書時期)는 주로 동한시대(東漢時代, 25-220) 이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趙學俊, 尹暢烈, <《黃帝內經》의 成書時代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논문집》, (대전: 대전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7권 제1호, 1996, 8, 17) p.143. 참조.

두 개의 논문과 한 권의 번역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혜정의 <양택 풍수지리의 방위관-《택경(宅經)》을 중심으로>⁹⁾는 《택경》에서 다루고 있는 방위관에 대한 개괄적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육임식반(六壬式盤)의 천문적 반영상황과 《황제택경》에서 24방위의 분금(分金)에 대한 설명, 청대의 조정동(趙廷東)에 의해서 정립된 양택삼요법(陽宅三要法)을 관련지은 양택방위론에 대한 연구이다. '장성규의 <《황제택경(黃帝宅經)》의 문헌적 연구>¹⁰⁾에서는 《황제택경》의 저술연대에 대한 것, 《황제택경》의 내용소개, 《황제택경》의 이론과 배경사상으로 음양오행, 황로사상(黃老思想)과 도가사상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두 연구자는 위의 연구결과를 결집하고 《택경》 외에도 《호수경》, 《청오경》 등의 풍수고전을 한꺼번에 묶은 공동번역서로서 《완역 풍수경전》¹¹⁾을 내놓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황제택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황제택경》의 논리체계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론전개의 근간이 되는 음양구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집(宅)을 용(龍)에 비유하는 '황제택경식(黃帝宅經式)'의 사고방식하에서 24방위상의 진(辰)·술(戌)과 해(亥)·사(巳)가 음룡(陰龍)과 양룡(陽龍)으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었던 점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금도서집성·황제택경》과 《사고전서·택경》의 원전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개의 원전본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두 개 본을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단락나누기¹²⁾와 주석부분에 있다. 본 논문은 주석이

9) 김혜정, <양택풍수지리의 방위관-《택경(宅經)》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서울: 한국건축역사학회, 제18권 2호 통권63호 2009년4월), pp.65-83.

10) 장성규, 앞의 글, pp.65-84.

11) 장성규, 김혜정, 《완역풍수경전》(서울: 예원, 2010).

12) 《고금도서집성·황제택경》에서는 서(序), 총론(總論), 범수택차제법(凡修宅次第法), 양택도설(陽宅圖說), 음택도설(陰宅圖說)로 단락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고전서택경》에서는 고금도서집성본에 없는 <제요(提要)>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택경권상(宅經卷上)>으로 시작하여 그 속에 <범수택차제법(凡修宅次第法)>을 포함시키

달린 《사고전서본·택경》을 위주로 하되 단락나누기에서 훨씬 세분화되어 해당부분을 찾아가기에 용이한 《고금도서집성본·황제택경》에 따라 서(序), 총론(總論) 외에 양택도설과 음택도설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그 외에 이해가 어렵고 애매한 부분은 왕옥덕(王玉德)의 《택경》역주서(譯註書)¹³⁾를 주로 참고하였다.

2. 《황제택경》의 음양이치

2.1 음양이택도(陰陽二宅圖)와 음양이치

《황제택경》에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책에서 제시된 음·양택도(陰·陽宅圖)를 본 사람이라면, 똑똑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 원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¹⁴⁾라고 하면서 두 개의 그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양이택도(陰陽二宅圖)¹⁵⁾이다.(〈그림1, 2〉참조.)

고 <택경권하(宅經卷下)>에서 단락의 별도제목이 없이 양택도(陽宅圖)와 음택도(陰宅圖)를 제시하면서 고금도서집성본과 다름없이 각 방위별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요문단 별로 작은 글씨의 주석을 달아서 내용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본 논문에 인용된 주석부분은 *표시와 괄호 안에 넣어 번역하였음.

13) 王玉德, 王銳, 《宅經》(중국북경: 中華書局, 2011).

14) 《黃帝宅經·凡修宅次第法》: 若見此圖者, 自然悟會, 不問愚智

15) 음양이택도(陰陽二宅圖)는 양택도(陽宅圖)와 음택도(陰宅圖)를 한꺼번에 언급하는 것이다.



〈그림1〉 양택도. 출처. 문연각사고전서, p.808-7.



〈그림2〉 음택도. 출처. 문연각사고전서, p.808-9.

음양(陰陽)의 이론은 《황제태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이론(氣理論)¹⁶⁾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전서본의 <제요>에서 음양의 이치는 매우 큰 것이고, 무형이지만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음양의 이치를 따라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재앙이 닥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음양론에 대해서는 이미 선현께서 책¹⁷⁾을 드리워서 계속소창(誠助昭彰, 힘써

16) 여기서 '기이론(氣理論)'이란 음양의 기를 다루는 이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밝고 밝게 혼계)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용(日用)하고 있지만, 스스로 어둡고 몽매(蒙昧)하여 그 원리를 알지는 못한다. 그 드러난 상(象)은 일월(日月), 건곤(乾坤), 한서(寒暑), 자웅(雌雄), 주야(晝夜)의 음양(陰陽) 등으로 포라만상(包羅萬象, 모든 것을 갖추)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一)를 들면 천(千)이 따라서 운변(運變, 운행변화)하기 때문에 무형(無形)이지만 능히 만물(萬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음양(陰陽)의 이치(理致)는 매우 큰 것이다. 경(經)에서 “음자(陰者)는 생화물정(生化物情)의 모친(母親)이고, 양자(陽者)는 생화물정의 부친(父親)으로서 이들은 천지(天地)의 원조(元祖)이며, 잉태(孕胎)하고 육성(育成)하는 지존(至尊)이다. 그래서 순응(順應)하면 형통(亨通)할 것이고, 역행(逆行)하면 불리(不利)한 것이다. 그것은 공충(公忠, 公明忠誠)하면 작위(爵位)를 받지만, 위명(違命)하면 오히려 변앙(變殃, 재앙)을 받는 것과 어찌 다를 것인가?”라고 하였다.¹⁸⁾

음양론의 근본은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결국 세상만물을 이분법적(二分法的)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황제태경》의 논리체계가 음양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이 그 내용에 있어서 유독 상대적인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서로 대응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황제태경》에서 언급한 오허오실(五虛五實)¹⁹⁾의 경우를 보면 먼저 허와 실이 대응관계에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빈모(貧耗)와 부귀(富貴), 대(大)와 소(少), 완전(完全)과 불완(不完), 정처(正處)와 불처(不處), 다(多)와 소(少)가 서로 대응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그 외에 내로저로론(來路抵路論)²⁰⁾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내로(來路, 지나온 길)와 저로(抵路, 나아갈 길)를 대응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대적(兩對的) 대응관계는 음양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허(虛)를 음, 실(實)을 양,

17) 《황제태경》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여러 태경류(宅經類)의 서적이 있었다는 의미.

18) 《黃帝宅經·序》: 況先賢垂籍, 誠勸昭彰, 人自冥蒙, 日用而不識. 其象者, 日月, 乾坤, 寒暑, 雌雄, 晝夜, 陰陽等, 所以包羅萬象, 舉一千從運變, 無形而能化物. 大矣哉, 陰陽之理也. 經之, 陰者, 生化物情之母也. 陽者, 生化物情之父也. 作天地之祖, 爲孕育之尊. 順之則亨, 逆之則否. 何異公忠受爵, 違命變殃者乎. 본 논문의 원문 번역은 기존번역서를 참고하여 눈자가 수정보완한 것이다.

19) 《黃帝宅經·總論》: 宅有五虛, 令人貧耗, 五實, 令人富貴. 宅大人少, 一虛. 宅門大內小, 二虛. 牆院不完, 三虛. 井竈不處, 四虛. 宅地多屋少庭院廣, 五虛. 宅小人多, 一實. 宅大門小, 二實. 牆院完全, 三實. 宅小六畜多, 四實. 宅水溝東南流, 五實.

20) 《黃帝宅經·總論》: 又云, 修來路即無不吉, 犯抵路未嘗安. 假如近從東來, 入此宅住後更修拓西方, 名抵路, 却修拓東方, 名來路. 餘方移轉, 及上官往來, 不計遠近, 準此爲例.

대(大)를 양, 소(小)를 음, 대로를 음, 저로를 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음양론은 이분법적인 인식체계로서 오행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기운변화의 원리적 관점에서 보면 오행론 못지않게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 의해서 제기된 음양론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음양교합론(陰陽交合論), 음양배합론(陰陽配合論), 극음극양론(極陰極陽論), 소음소양론(少陰少陽論), 정음정양론(淨陰淨陽論) 등이다.²¹⁾ 이와는 별개로 《황제택경》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음양상득론(陰陽相得論)과 포음포양론(抱陰抱陽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음양상득론은 《사고전서·택경》의 <제요>에서 “이 책에서는 주로 음양상득(陰陽相得)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의리(義理)가 적지 않으며, 문사(文辭, 문장) 또한 우아하고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²²⁾라고 하여 책 내용에 대한 호평(好評)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황제택경》의 논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음양론이며, 더욱 세부적으로 볼 때 《황제택경》에서 거론하고 있는 ‘음양상득(陰陽相得)’과 ‘포음포양(抱陰抱陽)’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2 음양상득(陰陽相得)과 포음포양(抱陰抱陽)

《황제택경》에서 말하는 음양상득론의 요지는 독음(獨陰)이나 독양(獨陽)

21) 음양교합론이나, 음양배합론은 음양론의 기본이론으로서 한의학계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론이며, 극음극양이나 소음소양은 태극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며, 정음정양론은 풍수향법상 정음정양법이라는 향법에서 거론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인철,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참조.

22) 《黃帝宅經·提要》: 而主於陰陽相得, 頗有義理, 文辭亦皆雅馴. 이것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논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필자가 편의상 ‘음양상득론’이라 칭하였다.

으로는 왕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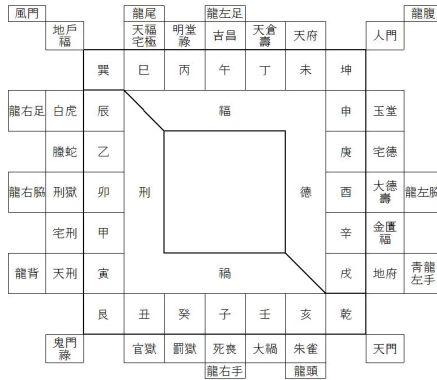
양(陽) 혼자서는 왕성²³⁾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陰)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양택(陽宅)은 마땅히 음위(陰位)를 수리한다.) 또한 음(陰) 혼자서는 왕성할 수 없다. 그래서 양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수리는 위와 같다.) 동기(冬期)에는 온난(溫暖)을 베푸는 것이 덕(德)이 되고, 하기(夏期)에는 양냉(涼冷, 시원하고 차가움)한 것이 덕(德)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자에게 [경우에 따라] 여성적인 면이 미덕(美德)이 될 수 있고, 여자에게 남성적인 면이 미덕(美德)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역결(易訣)에서 말하길, 음(陰)이 양(陽)을 얻는 다는 것, 마찬가지로 더울 때 시원함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오성(五姓, 百姓)이 함화(咸和, 두루 화합)하고 백사구창(百事俱昌, 모든 일이 잘 됨)한다는 것이다.²⁴⁾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황제택경》상의 ‘음양상득론’은 기존의 음양론 중에서 ‘음양교합(陰陽交合)’과 ‘음양배합(陰陽配合)’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제택경》에서 말하는 양택(陽宅)이라는 것은 양택도(陽宅圖,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陽)의 방위를 좌(坐)방위로 놓고, 음(陰)의 방위를 향(向)방위로 놓았음을 말한다. 이때 좌방위의 양(陽)이 팔을 벌려 향방위의 음(陰)을 포옹(抱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기포음(陽氣抱陰)이라고 하는 것이다. 음택도(陰宅圖, 그림2)에서는 그 반대로 음기포양(陰氣抱陽)이 된다. 이런 개념적인 부분 이외에 음택과 양택을 구분하는 기준상의 포음포양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 사고전서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안거금경에서는 ‘旺’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왕성(旺盛)으로 해석하였다.

24) 《黃帝宅經·總論》: 是以, 陽不獨王, 以陰爲得(陽宅爲直修陰方). 陰不獨王, 以陽爲得(如上說). 亦如, 冬以溫暖爲德, 夏以涼冷爲德, 男以女爲德, 女以男爲德, 之義. 易訣云, 陰得陽, 如暑得涼, 五姓咸和, 百事俱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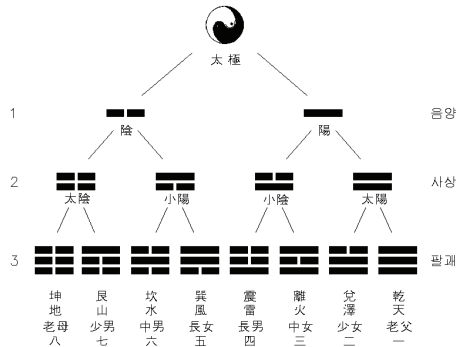


〈그림3〉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양기포음도²⁵⁾. 필자작성

《황제택경》에서는 “24로(路)²⁶⁾로 구분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휴구(休咎, 길흉)를 살피는 방식을 살펴보면, 팔괘(八卦)를 놓고 음양(陰陽)을 구분하고 있다.”²⁷⁾고 하여 음양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팔괘이며, 괘상(卦象)에서 포음포양²⁸⁾하고 있는 팔괘상(八卦上)의 남녀구분임을 알 수 있다. 즉, 팔괘와 한 가정을 이루는 가족구성원을 서로 대응시키면 건(乾☰, 노부), 태(兌☱, 소녀), 리(離☲, 중녀), 진(震☳, 장남), 손(巽☴, 장녀), 감(坎☵, 중남), 간(艮☶, 소남), 곤(坤☷, 노모)이 된다. “건부(乾父)를 필두로 삼남(三男, 아들 셋)인 진감간(震坎艮)²⁹⁾은 모두 양위(陽位)에 속하며, 곤모(坤母)를 필두로 삼남(三女, 딸 셋)인 손리태(巽離兌)³⁰⁾는 모두 음위(陰位)에 속한다.”³¹⁾

25) 〈그림1〉의 양태도를 바탕으로 자좌오향 즉 남향의 집을 그려본 것이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좌가 양, 오향이 음의 영역에 속하므로 양기가 포음한 경우에 해당한다.
 26) 묘지풍수에서도 24방위체계를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24산(山)'이라고 하고, 건축풍수를 논하는 황제택경에서는 '24로(路)'라고 하였다.
 27) 《黃帝宅經·提要》: 其法分二十四路考尋休咎, 以八卦之位
 28) 팔괘는 각기 3개의 효로 이루어진 괘상(卦象)을 가지고 있는데, 건괘와 곤괘를 제외하고 나머지 괘는 모두 3개의 효 중에서 각기 한 개씩은 포음 또는 포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9) 진(震, ☳, 長男), 감(坎, ☵, 中男), 간(艮, ☶, 少男)이 된다. 삼효(三爻)중 일효(一爻)가 양(陽)인 것은 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들인 괘(卦)가 배속된 방위를 양(陽)으로 본 것이다. 어머니와 딸의 괘가 배속된 것은 음명(陰明) 또는 음암(陰暗)이 될 것이다.
 30) 손(巽, ☴, 長女), 리(離, ☲, 中女), 태(兌, ☱, 少女)가 된다. 삼효(三爻)중 일효(一爻)가

그래서 요약하면, 남자에 해당하는 건진감간은 양, 여자에 해당하는 곤손리태는 음이 된다.((그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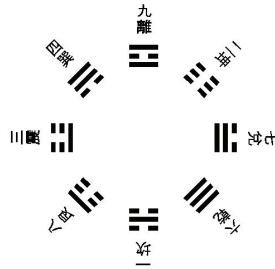


〈그림4〉 팔괘의 가족 구성원 배속도. 필자작성

팔괘는 태극(太極)에서 3번의 음양변화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으로 각각 3개의 효(爻)로 이루어져 있다. 건괘와 곤괘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음(抱陰) 또는 포양(抱陽)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각기 음효(陰爻, --)와 양효(陽爻, —)를 한 개 내지는 두 개씩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³²⁾ 건괘나 곤괘의 경우도 엄격하게 보면 이미 태극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건괘와 곤괘도 이미 포음 또는 포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음(陰)인 것은 딸을 의미한다. 그래서 딸인 괘(卦)가 배속된 방위를 음(陰)으로 본 것이다.

31) 《黃帝宅經·總論》: 乾將三男震坎艮, 悉屬於陽位. 坤將三女巽離兌悉屬陰之位.
 32) 가령 리괘의 경우를 살펴보면 괘상이 ☲인데 상하에 양효가 있고 중간에 음효가 있어서 포음의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괘의 경우 반드시 중효가 아니더라도 음효 또는 양효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5〉 문왕팔괘도. 필자작성

단순한 음양의 관점에서 볼 때, 건(乾)의 상대는 당연히 곤(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황제택경》에서는 손(巽)을 음의 우두머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24로상의 팔괘의 방위배속도가 복희팔괘(伏羲八卦)인지, 문왕팔괘(文王八卦)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황제택경의 음양이택도는 어디까지나 문왕팔괘의 방위배속에 따른 것이다. (〈그림1,2와 5〉를 비교참조). 그러다 보니 건(乾, 老父)에 마주하는 것은 곤(坤, 老母)이 아니라 손(巽, 長女)이다. 그래서 음의 대표를 장녀에 해당하는 손괘로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황제택경》에서 건에 대응하는 “풍문(風門, 巽방위)은... 양극음수(陽極陰首)의 방위이다.”³³⁾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된다.

동지는 사(巳)방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지는 해(亥)방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음양의 기운이 기성(起盛, 일어나는)하는 극처(極處)가 서로 같지 않다. 그래서 성인(聖人)이 지면에다 팔괘(八卦)를 그려 남녀의 궁(宮)을 열거하였다. 여기서 궁(宮)이라는 것이 바로 택(宅)인 것이다. 손괘(巽卦, ☴)는 장녀(長女)로 음(陰)에 속하고, 건(乾, ☰)은 하늘로서 바로 양명(陽明)인 것이다.³⁴⁾

그래서 《황제택경》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음

33) 《黃帝宅經·陽宅圖說》: 風門. . .亦陽極陰首.

34) 《黃帝宅經·凡修宅次第法》: (冬至巳, 夏至亥, 是陰陽起盛之極處不同, 聖人於地面上畫八卦, 列女男之宮. 宮者, 宅也. 巽爲長女, 屬陰, 乾爲天, 天爲陽明矣.)

양의 잠통(潛通)과 운회(運回)의 도(道)는 각 술수마다 팔괘와 구궁의 분형열상(分形列象, 형태를 구분하여 나열한 형태)에 근거하여 남녀를 배속하는데 동일하지 않다.”³⁵⁾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황제택경》에서는 다른 풍수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음양구분의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3〉의 필자가 새로 작성한 양기포음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때는 건곤간손이고, 4방의 지지에 의해서 가려져 24로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은 감리진태³⁶⁾이다. 어찌 되었던 24로는 팔괘의 좌우에 천간(天干) 또는 지지(地支)가 하나씩 배속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팔괘를 중심으로 3개의 방위가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여 음과 양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황제택경》에서 말하는 24로(路)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모여서 24방위[$3 \times 8 = 24$]가 된 것이다. 어찌되었던 《황제택경》의 논리상에 음양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팔괘이다. 팔괘좌우의 천간과 지지는 그에 종속되는 개념인 것이다. 결국 팔괘가 좌우의 천간(하늘, 양)과 지지(땅, 음)의 음양성분을 포함하는 형식이 된다. 그것도 역시 포음포양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황제택경》의 24로상 음양의 상황을 살펴보면, 임자(갑)계가 양, 축간인이 양, 갑묘(진)음이 양, 병오(리)정이 음, 미곤신이 음, 경유신이 음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진손사와 술건해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다른 기준이 개입된 듯이 보인다. 진손사는 기준이 되는 손괘가 장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음으로 분류되어야 하겠지만, 손사는 음, 진(辰)은 양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술건해의 술(戌)의 경우도 양의 대표괘인 건괘에 종속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음으로 분류되는 특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황제택경》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패중심의 음양판단의 논리체계상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황제택경》에서 집(宅)을 용(龍)으로 보고 있는 사고방식과 《황제택경》의 논리전

35) 《黃帝宅經·凡修宅次第法》: 此是二氣潛通, 運回之數, 不同八卦九宮分形列象, 配男女之位也.

36) 갑(坎)은 자(子), 리(離)는 오(午), 진(震)은 묘(卯), 태(兌)는 유(酉)에 의해 가려졌다고 본다.

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 ‘음양상득론’과 ‘포음포양론’을 끌어들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3. 《황제택경》의 청룡(靑龍)과 적룡(赤龍)

3.1 24로(路)의 음양구분

《황제택경》의 음양이택도(陰陽二宅圖, <그림1, 2>)는 보는 바와 같이 미음자(口字)형식의 집³⁷⁾을 상징하고 있다. 《황제택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는 것이 음양이택도이다. 그것은 집을 음택과 양택으로 나눈 것이며, 그 속에서 또 형화방과 복덕방으로 이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복덕방을 길한 것, 형화방이 흉한 것을 주관하는 방위로 설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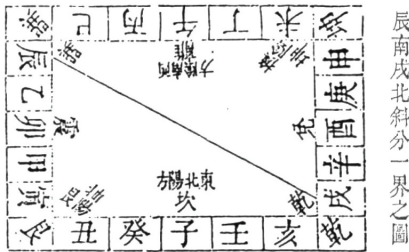
복덕(福德)의 방위를 스스로 알아서 잘 수리를 한다면,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고, 관영진달(官榮進達)도 가능하고, 재식(財食)이 풍영(豐盈)하며, 육축(六畜)을 획득(獲得)하고 안정(安定)되며, 또한 천수(天壽)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금(金)과 옥(玉)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진(珍)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며, 진짜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것보다 막대(莫大)한 것은 없다. 집에 한 본(本)씩 소장하여 자손들을 훈계(訓戒)시키고 비보(秘寶)로 할 만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택경(宅鏡, 비추어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⁸⁾

《황제택경》의 음양논리는 기본적으로 24방위를 이분하여 음양으로 나누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앞에서 팔괘를 기준삼아 8방위의 음양이 구분되는 것

37) 중국건축의 ‘口자형’의 대표적인 것은 ‘사합원(四合院)’이라고 불리는 주거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38) 《黃帝宅經·凡修宅次第法》: 福德自修, 災殃不犯, 官榮進達, 財食豐盈, 六畜獲安, 又歸天壽, 金玉之獻, 未足爲珍, 利濟之徒, 莫大於此, 可以家藏一本, 用誡子孫, 秘而寶之, 可名《宅鏡》.

을 살펴보았다. 이제 24방위를 둘로 나누어 12방위씩 음양으로 구분한 것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볼 차례이다. 우선 《황제택경》에서는 “혹자는 자오선(子午線)을 집의 음양(陰陽)의 경계로 삼는데, 그것은 심각한 오류이다.”³⁹⁾라고 하여 단순히 남북을 경계로 음양을 구분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황제택경》에서 음양구분의 기준선은 어떻게 그어질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림6〉辰南戌北斜分一界之圖.⁴⁰⁾ 출처. 續修四庫全書, 子部 術數類, 安居金鏡 p.684.

음양이택도에서의 음양구분의 기준은 사고전서본의 주석에서 볼 수 있듯이 “동쪽에서는 진(辰)의 남(南), 서쪽에서는 술(戌)의 북(北)을 기준으로 사선(斜線)을 하나 그으면 그것이 음양의 경계가 된다.”⁴¹⁾ 이러한 언급을 참고하여 그려진 사례가 바로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안거금경(安居金鏡)》⁴²⁾의 ‘진남술북사분일계지도(辰南戌北斜分一界之圖, 〈그림6〉)’이다.

39) 《黃帝宅經·凡修宅次第法》: 或者取子午分陰陽之界, 誤將甚也.
 40) 子위에 東北陽方, 午위에 南西陰方, 艮위에 抽陽, 坤위에 斜陰이라고 적혀있다.
 41) 《黃帝宅經·總論》: 是東面爲辰南, 西面爲戌北之位, 斜分一條, 爲陰陽之界. : 음택과 양택을 구분한 기준은 진토(辰土)·술토(戌土)의 경계에서 팔괘의 음양 구분에 따랐다. 손(巽, ≡ 장녀), 곤(坤, ≡ 노모), 태(兌, ≡ 소녀)는 음택 방위인 건(乾, ≡ 노부), 간(艮, ≡ 소남), 진(震, 장남)은 양택 방위인 것이다. 《續修四庫全書: 子部 術數類》, <安居金鏡>,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編, 上海古籍出版社, 1995, p.684.의 辰南戌北斜分一界之圖의 설명에서 “此陰陽東西乃二十四位之東西分陰陽也, 陰陽卦卽兩儀所生之陰陽卦也 非遊年東西之謂”라고 언급하고 있다.
 42) 《續修四庫全書·子部 術數類》, <安居金鏡> p.684.: <안거금경>은 《황제택경》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진남술복사분일계지도(辰南戌北斜分一界之圖)’조차도 음양의 경계선 곳곳에 약간의 애매성을 띠고 있고, 게다가 《황제택경》에서의 여러 군데의 언급조차도 오히려 연구자로 하여금 구분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선, 《황제택경》의 <제요>에서 “건감간진(乾坎艮震)과 진(辰)⁴³까지를 양(陽)으로 하고, 손이곤태(巽離艮兌)와 술(戌)까지를 음(陰)으로 하고 있습니다.”⁴⁴라고 하였고, 그 다음 본문의 <권상(卷上)>의 ‘주석’에서 “서북건위(西北乾位)⁴⁵에서 ‘진(震)’까지가 양명(陽明)이 된다는 것이다.”⁴⁶고 하였다. 바로 이어서 음명(陰明)에 대해서 “동남손(東南巽位)⁴⁷에서 술(戌)까지가 음명(陰明)이 된다.”⁴⁸고 하였다.

그 다음 <총론>의 입양(入陽)과 입음(入陰)의 언급에서는 <제요>의 언급과 같은 내용으로 음양기준이 제시된다. 즉, “손(巽)에서 건(乾)으로, 오(午)에서 자(子)로, 곤(坤)에서 간(艮)으로, 유(酉)에서 묘(卯)로, 술(戌)에서 진(辰)으로 향하여 [수리하거나]⁴⁹ 이동하는 것을 ‘입양(入陽)’으로 본다.”⁵⁰라고 하여 음(陰)에서 양(陽)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인 입양(入陽)을 설명하면서 술(戌)이 음(陰), 진(辰)이 양(陽)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여러 언급을 종합하고 음양이택도의 <그림1,2>과 ‘진남술복사분일계지도(그림6)’를 참고할 때, 음양기준에 혼란을 주었던 권상의 주석에서 등장한 ‘진(震)’은 ‘진(辰)’의 오기(誤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⁵¹ 그래야만 24로

43) 고금도서집성본이나 사고전서본에서는 모두 ‘진(震)’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진(辰)’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44) 《黃帝宅經·提要》: 乾坎艮震及辰爲陽, 巽離坤兌及戌爲陰.

45) 건(乾)은 서북방위에 배속되는데 문왕팔괘, 즉 후천팔괘에 따라서 배속된 것이다.

46) 《黃帝宅經·總論》: 卽從西北乾位之震, 爲陽明矣.

47) 곤(坤)은 서남방위에 배속되는데 문왕팔괘, 즉 후천팔괘에 따라서 배속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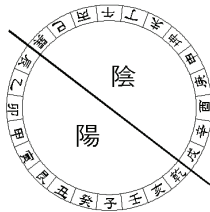
48) 《黃帝宅經·總論》: 從東南巽角順之戌, 爲陰明矣.

49) 《황제택경》에서 수리하는 것은 무기(無氣), 무혼(無魂) 등으로 언급된다. 이동하는 것은 동선(動線)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멀딘 가깝던 관계없이 시작점에서 목표점까지의 이동경로의 방향성을 보고 ‘입음(入陰)’, ‘입양(入陽)’을 따진다.

50) 《黃帝宅經·總論》: 凡從巽向乾, 從午向子, 從坤向艮, 從酉向卯, 從戌向辰移. (已上移轉及上官所住, 不計遠近, 悉入陽也.)

51) 만일, 양을 건괘에서 진괘로 언급했다면, 음은 당연히 손괘에서 태괘로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팔괘로 음양을 구분하다가 갑자기 지지인 ‘술(戌)’이 등장할 리가 없다는 것이

가 12개씩 균형있게 음양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그림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 <그림7>이다.



<그림7> 음위(陰位)와 양위(陽位)의 구분. 동면(東面) 진남(辰南), 서면(西面)에서는 술북(戌北)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선(斜線)을 긋는다. 필자작성

3.2 포음룡(抱陰龍)과 포양룡(抱陽龍)

앞에서 《황제택경》의 <총론>의 입양과 입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辰)과 술(戌)이 음양의 경계임을 확실히 하였는데, 남은 문제는 왜 하필 진(辰)·술(戌)을 음양의 경계로 삼았는가 하는 것이다. 《황제택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듯이 팔분금(八分金)의 기준 즉, 팔괘의 음양을 기준으로 보면 건(乾), 감(坎), 간(艮), 진(震)의 사괘(四卦)가 양(陽, 男)이 되고, 손(巽), 리(離, 곤(坤), 태(兌)의 사괘가 음(陰)이 되므로 음양의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8분금이 아니라 24분금의 방위개념 즉 24로 확대하여 생각한다면,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4방위를 팔괘기준으로 동(東)에서 부터 팔분금(八分金)한다면, 해당괘의 좌우간지(干支干支)의 방위와 함께 묶어서 갑진을, 진손사, 병리정, 미곤신, 경태신, 술건해, 임감계, 축간인의 8개가 된다. 《황제택경》의 음양이치에 따르면 음양이택의 구분기준은 분명 팔괘이다. 이렇게 팔괘를 중심으로 3개씩 한 묶

다.<그림. 6>참조. 따라서 '辰'이 '震'으로 둔갑한 것은 고금도서집성본 또는 그 이전의 어떤 시기에 주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이 된 방위체계에서는 당연히 3개씩 음 또는 양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술건해에서 술은 건(乾, 양)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양(陽), 진손사에서 진은 손(巽, 음)에 따라 음(陰)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음양이택도에서는 진(辰)과 술(戌)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본괘(本卦)와 다른 음과 양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음양구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황제택경》에서 말하는 집[宅]이란 단순히 24방위상한 칸씩을 차지하는 여러 방실(房室)로 이루어진 하나의 빌딩이 아니라, 음양과 암수의 성격을 가진 두 마리의 살아있는 청룡(靑龍)과 적룡(赤龍)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양택(陽宅)이란 양기포음(陽氣抱陰)이고, 음택(陰宅)은 음기포양(陰氣抱陽)이다. 음양(陰陽)의 택(宅)은 바로 용(龍)이다.”⁵²⁾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황제택경》에서 말하는 집은 살아있는 용인 것이다. 《황제택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집을 용이라고 볼 때 음양이택도를 자세히 보면 두 마리의 용에 해당하는 각 방위별 용의 신체 부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1, 2, 3 참조)

그런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방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亥)와 사(巳) 방위이다. 《황제택경》에서는 24로중에서 유독 해(亥)와 사(巳)방위가 용의 머리이기도 하고 꼬리이기도 하는 중복적 위치라고 말하고 있다.

양택에서 용머리는 해(亥)방위에 있고, 꼬리는 사(巳)방위에 있다. 역으로 음택에서 용머리는 사(巳)방위에 있고, 꼬리는 해(亥)방위에 있다. (*이러한 상태는 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음룡(陰龍)은 청색(靑色), 양룡(陽龍)은 적색(赤色)이다.)⁵³⁾

이제, 집을 두 마리의 용으로 보는 견해를 바탕으로 앞에서 미해결 상태로 두었던 진술(辰戌)과 용의 두미(頭尾)의 방위에 해당하는 해사(亥巳)의 문제

52) 《黃帝宅經·總論》: 凡之陽宅, 卽有陽氣抱陰, 陰宅卽有陰氣抱陽. 陰陽之宅者, 卽龍也.

53) 《黃帝宅經·總論》: 陽宅龍頭在亥, 尾在巳. 陰宅龍頭在巳, 尾在亥. (其狀在龍者, 陰龍靑, 陽龍赤.)

를 재론해보기로 한다. 앞의 인용문에서 적룡의 용머리(龍頭)가 해(亥), 꼬리(龍尾)는 사(巳), 청룡의 용머리가 사, 꼬리는 해에 있다고 하였는데, 적룡의 머리가 청룡의 꼬리가 되고 청룡의 머리가 적룡의 꼬리가 된다는 것이다. 즉 해(亥)와 사(巳)에 적룡과 청룡의 두미(頭尾)가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두미가 함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시된다. 즉, 해(亥)·사(巳)는 적룡(赤龍, 陽)의 일부임과 동시에 청룡(靑龍, 陰)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양의 경계로 삼은 것은 해(亥)와 사(巳)가 아니라, 그것도 건(乾)과 손(巽)의 방위를 건너 다음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술(戌)과 진(辰)방위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황제태경》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

적룡의 머리인 해(亥) 앞에 또 다른 양인 건(乾)이 있고, 청룡의 용머리인 사(巳) 앞에 음인 손(巽)이 있다. 《황제태경》에서는 건(乾)의 위치를 “천문(天門)이며 양수(陽首, 陰極陽首)”⁵⁴⁾라고 하여 두(頭)와 수(首)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해방위 앞에 있는 것이 건(乾)이라면 두(頭) 보다 더 튀어나온 부분으로 수(首)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해(亥)방위가 양택도에서 보는 것처럼 용두(龍頭)라면, 건방위는 양수(陽首)로서 양극점(陽極點)인 것이다. 건(乾)이 양극(陽極)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소음(少陰)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포음포양(抱陰抱陽)의 원리를 적용하면 양속에 음이 있고 음속에 양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속의 음, 음속의 양이란 양룡 속의 음룡, 음룡 속의 양룡이라는 것인데 그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림3>을 보면 한 덩어리로 인정되는 진손사(辰巽巳)가 음룡의 머리통으로서 양룡의 꼬리[巳]부분과 서로 겹쳐지고, 양룡의 머리통[戌乾亥]과 음룡의 꼬리[亥]부분이 서로 겹쳐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음의 일부와 양의 일부가 머리카 꼬리 부분에서 단순히 서로 겹쳐져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적룡과 청룡이 서로 일정부분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상상해본다면 양룡의 머리카 음룡의 꼬리를 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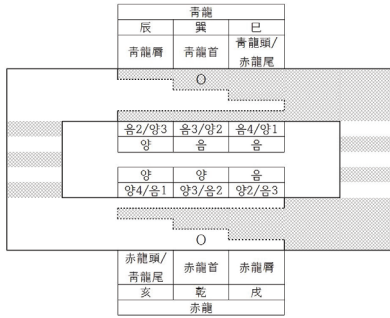
54) 《黃帝宅經·陽宅圖說》: 天門陽首

음룡의 머리가 양룡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양룡인 적룡은 포음룡(抱陰龍)이 되고 음룡인 청룡은 포양룡(抱陽龍)이 되는 것이다. 즉, 양룡에서 해(亥)가 용머리라면 건(乾)은 용이 벌리고 있는 입부분에 해당하며, 술(戌)은 입술부분으로서 그 입속에 음룡의 몸통말단인 꼬리부분으로서 해(亥)가 물려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야만, 적룡의 용머리(龍頭)가 해(亥), 꼬리(龍尾)는 사(巳), 청룡의 머리가 사, 꼬리는 해에 있다는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두 마리의 용은 팔괘를 이등분하여 각기 4개의 괘로 몸통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면 매우 간단한데, 그중 맨 앞과 맨 뒤의 두 개의 괘는 각기 머리통(頭, 首)과 꼬리부분(尾)이 되고, 나머지中间的 두 개의 괘는 협(脇)이나 복(腹)으로 몸통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황제택경》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하지 않고 한 마리의 용이 5개의 괘에 걸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양룡은 음위(陰位)의 일부를 차지하고 음룡은 양위(陽位)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음·양룡이 서로 파배기처럼 꼬여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득음득양과 포음포양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양룡의 술건해 위치에 양룡의 머리통부분이 있고, 음의 영역인 진손사에서 꼬리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진손사는 음룡의 머리부분이 되고, 양의 영역인 술건해가 꼬리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는 양룡의 용두(龍頭)입과 동시에 음룡의 용미(龍尾)가 되고, 사는 음룡의 용두입과 동시에 양룡의 용미가 되는 것이다.

해와 사의 방위가 각기 머리와 꼬리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고 보고 이제 진과 술이 왜 기준괘에서 떨어져 나와 별도의 음양으로 나누어지며 음양구분의 기준선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8〉 적룡[양룡]과 청룡[음룡]이 뒤엉켜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 'O'표시는 용의 눈이다. 필자작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룡이 5개의 패방위 즉 15개의 방위에 걸쳐 몸통을 두고 있다고 볼 때, 술건해는 적룡의 머리통에 해당한다. 그것을 삼등분하면 쭉 튀어나온 용의 입술 부분이 바로 맨 앞에 해당하는 술(戌)의 부분⁵⁵⁾이 될 것이다. 적룡과 청룡이 서로 물지 않고 그냥 앞뒤로 줄을 서있는 경우로 본다면, 당연히 술건해의 술(戌)이 양이 되어야 하겠지만, 음룡의 일부를 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술방위가 적룡의 입술부분(脣)으로서 양(陽)보다는 비록 꼬리 부분이기는 하지만 입 속에 물려있는 음인 청룡의 부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음양의 정도를 따질 때는 양이 아니라 음이 되는 것이다. 진(辰)방위에서는 그 반대가 된다. 그렇게 본다면 술방위가 양룡의 신체일부인 양(陽)임이 분명하지만, 왜 음의 방위로 구분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된다.

결국 몸통의 두께를 5라고 가정하고 꼬리부분에서 그 두께가 가늘어진다고 보면, 양룡의 용두인 해(亥)에서는 음룡의 꼬리부분을 물고 있으므로 양[양4] 음1→양성)이 된다. 바로 앞의 건(乾)은 여전히 음룡의 가느다란 용미를 물고 있어 양[양3]음2→양성)이 된다. 그 앞의 술(戌)은 양룡의 입술부분이지만 음

55) 양택도에서 술(戌)방위는 용좌수(龍左手), 진(辰)방위는 용우족(龍右足)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따지는 것은 사지(四肢)가 아니라, 몸통을 두고 논의하는 것으로서 술방위와 진방위를 각각 입술 부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룡의 용미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물고 있어 음[양2(음3→음성)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음룡의 용두인 사(巳)에 대해 손(巽)과 진(辰)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된다.((그림8) 참조)

4. 결론

《황제택경》은 최초저술의 연대가 확실하지 않지만, 건축풍수서로서 현존의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에 묘지풍수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청오경》·《금낭경》을 보아야하듯이 건축풍수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제택경》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황제택경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논리체계와 의미를 살펴본 것이 바로 본 연구이다.

황제택경은 우선 음양론의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양상득론(陰陽相得論)과 포음포양론(抱陰抱陽論)을 위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음양상득론은 음양교합(陰陽交合)과 음양배합(陰陽配合)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서, 독음(獨陰)이나 독양(獨陽)으로는 왕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핵심개념이다. 청룡과 적룡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음양기의 기운을 얻고 소통하며 이어나간다는 것이 바로 득음득양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음양적 사고방식은 국가 간의 상호교류에서도 확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중국이 양이라면, 한국은 음이 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포음포양론은 중국술수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팔괘로서 설명되며, 음양이택도상의 좌(坐)와 향(向)으로서 음과 양이 서로 포용하고 있는 형상을 설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24방위상 적룡과 청룡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팔괘 속의 3개의 효(爻) 가운데 하나의 효를 통하여 포음이나 포양이 되듯이, 24방위상에 팔괘 중심으로 묶여진 3개

의 방위에서 포음포양이 설명되고 또 술건해와 진손사에서 용의 머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 부분을 3등분하여 포음포양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황제택경》에서 전개된 포음포양의 의미를 생각하면, 프랙탈구조가 연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황제택경》의 이론전개의 근간이 되는 음양구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집(宅)을 용(龍)에 비유하는 ‘황제택경식(黃帝宅經式)’의 사교방식하에서 24방위상의 진술(辰戌)과 해사(亥巳)가 음룡(陰龍)과 양룡(陽龍)으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중국 풍수고전《황제택경》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후 더 연구되어야 내용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방위별 용의 신체부위설정과 인간의 질병발생에 대한 것, 오성론(五姓論)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면서도 실제적인 방위별 수리일의 결정에 있어서 일부 수용하는 것, 그 외에도 황제택경의 논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한다고 할 때 동일한 성씨(姓氏)에 동일한 한자(漢字)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의 발음이 다르다는 문제, 음양적 논리체계 외에 오행적 논리체계에 대한 것, 황제택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도별, 방위별, 대상별로 제시된 상대적 적합성 등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

[문헌류]

《鼎文版古今圖書集成·黃帝宅經》，中華民國臺灣省臺北市：鼎文書局，1965(中華民國66年).

《景印文淵閣四庫全書·宅經》，中華民國臺灣省臺北市：臺灣商務印書館，1971(中華民國72年).

《續修四庫全書·安居金鏡》，中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

장성규, 김혜정, 《완역풍수경전》，서울: 문예원, 2010.

王玉德, 王銳, 《宅經》，중국북경: 中華書局, 2011.

[논문류]

趙學俊, 尹暢烈, <《黃帝內經》의 成書時代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논문집》, 대전: 대전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7권 제1호, 1996년 8월.

장성규, <《황제택경(黃帝宅經)》의 문헌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서울: 한국건축역사학회,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김혜정, <양택풍수지리의 방위관-《택경(宅經)》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서울: 한국건축역사학회, 제18권 2호 통권63호 2009년 4월.

조인철,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Abstract >

《Hwangjet'aekkyöng(黃帝宅經)》 is the oldest book about Chinese architectural-fengshui(建築-風水). If 《jingwujing(青烏經)》 and 《jinnangjing(錦囊經)》 is the must read books for the tomb-geomancers, 《Hwangjet'aekkyöng(黃帝宅經)》 is for the architectural geomancers. The basic theory of 《Hwangjet'aekkyöng(黃帝宅經)》 is to divide yinyang(陰陽) for 24 orientations consisted of tiangan(天干), dizhi(地支) and bagua(八卦). The first step to understand 《Hwangjet'aekkyöng(黃帝宅經)》 is to investigate the division logic

of yinyáng(陰陽). So, this thesis is about yinyáng(陰陽) division system in 《Hwangjet'aekkyöng(黃帝宅經)》

Key words: fengshui(風水),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八卦), misfortune, fortune, yinyang(陰陽)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6. 25.	2015. 7. 14.	2015. 8. 4.	2015. 8. 18.	2015. 8. 31.